



## 미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 속 인플레이 우려 완화로 상승

### 미국 증시 리뷰

13 일(화)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경계심리로 장중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기도 했으나, 이후 인플레이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 속 CDC 발 경제정상화 기대 확대, 연준 이사의 시장 친화적 발언("인플레이션은 일시적")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면서 상승세로 마감(다우 +1.3%, S&P500 +1.2%, 나스닥 +0.7%). 업종별로는 에너지(-1.4%)를 제외한 산업재(+1.9%), 금융(+1.9%), 기술(+1.4%), 커뮤니케이션(+0.9%) 등 전업종이 강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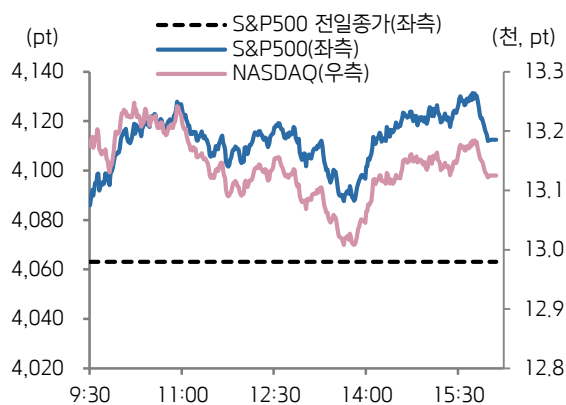
미국의 4 월 생산자물가는 6.2%(YoY)로 전월(4.2%) 및 예상치(6.2%)를 큰 폭 상회. 전일 소비자 물가에 생산자 물가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4 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증한 상황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작용.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47.3 만건으로 전주(50.7 만건) 및 예상치(49.0 만건)을 모두 하회하면서 작년 3 월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고용시장의 탄탄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 미국 증시 평가

최근 인플레이션 발 증시 조정 배경은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지속 시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 위축, 기업들의 실적 둔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주로 기인. 그러나 경제 정상화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형이며, 공급 측 물가 상승 요인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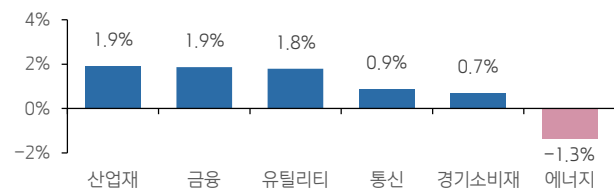
또한 CDC(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게 한해 실내/실외 마스크 벗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 경제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은 경제주체들의 소득 정상화,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수요 개선까지 뒷받침하는 인플레이션은 명목 단위로 거래되는 주식시장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

S&P500 일중 차트(5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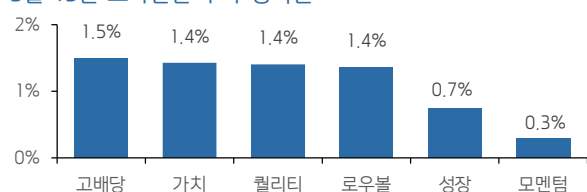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1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13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1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5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7.8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1. 3 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 이들의 추가 순매도 진정 가능성 2. 전거래일 미국 증시처럼 (반등에 성공했음에도) 장중 변동성 확대 국면 전개 여부 3.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차량 반도체 공급난 대응 발표에 따른 관련주 투심 개선 가능성

###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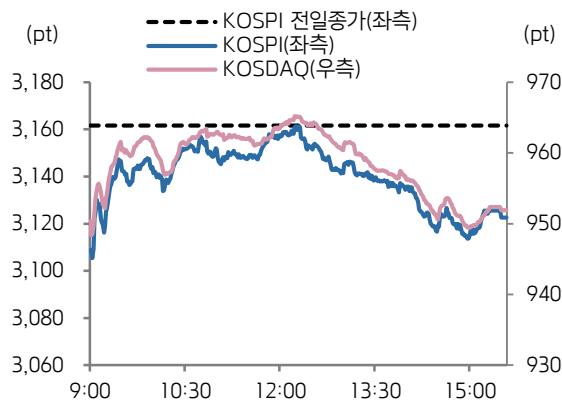
13 일(목) 한국 증시는 미국 인플레이션 쇼크에 따른 미 증시 급락 여파로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3 거래일 연속 1%대 급락세가 과도했다는 인식 속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 중반 상승 전환하기도 함. 그러나 장 후반 들어 일본, 중국, 대만 등 여타 아시아 주요국 증시와 함께 동반 약세 압력을 받은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도세도 심화됨에 따라 1%대 하락세로 마감(코스피 -1.3%, 코스닥 -1.6%).

중국 국무원의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발언 여파로 철강금속(-4.91%) 업종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삼성전자(-1.89%), SK 하이닉스(-1.7%) 등 반도체 포함 대부분 대형주들이 동반 약세를 기록. 외국인은 1.4 조원 순매도 하면서 3 거래일 누적으로 6.1 조원대의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

###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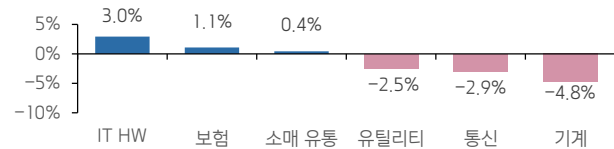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최근 공격적인 대규모 순매도에 나선던 외국인의 수급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물론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난 3 거래일 동안 각각 3.9%, 4.1% 급락한 가운데, 일중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대응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신감 회복을 지체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미국 생산자 물가 서프라이즈 지표 발표 이후 시장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3 월 금리 상승 사태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에 익숙해질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5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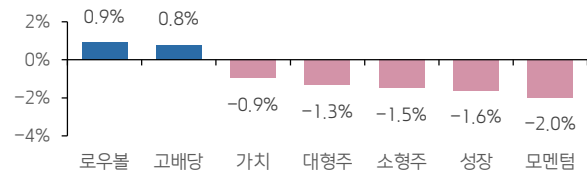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1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13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류,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